

唐朝의 純密盛行과 入唐 新羅 密教僧들의 思想 — 순밀사상의 신라전래와 그것의 한국적 전개 —

宗釋(全東赫)

불교학과 교수

우리는 곧잘 高麗佛敎를 秘密佛敎, 儀禮佛敎, 祈禱佛敎로 평가를 한다. 무엇이 고려불교를 이렇게 성격짓게 만들었을까? 나는 그것을 密敎라 생각한다. 곧 밀교야말로 고려불교의 핵심으로서 고려불교를 규명하는 열쇠로서의 위상을 가짐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廢佛期 조선조 500년이란 冬眠의 역사를 지탱케 해준 등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密敎의 韓國的 展開研究는 한국불교의 실상을 규명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것이다.

본고는 그 논제가 말해 주듯 한반도에서 純密思想 受容 및 그 전개사에 대한 고찰로서 《釋門儀範》속의 純密思想 규명은 물론 한반도에서 성립된 二大 密敎宗派 神印宗과 總持宗의 法脈考察 내지는 思想展開史이다. 중국 및 일본사서에는 不可思議·玄超·義林을 비롯하여 慧超·惠日·悟眞 등 신라 밀교승들의 이름이 보인다. 모두가 金·胎 兩部 純密思想의 수학을 위해 神印宗과 總持宗에서 파견한 입당 신라 밀교승들이다. 곧 총지종 승려인 불가사의·의림·현초 등은 입당 후 태장계밀법의 대가 선무외삼장의 제자가 되어 胎藏界密法을 부족받았으며, 역시 총지종 승려였던 혜일·오진 등은 金·胎 兩部 密法의 대가인 혜과화상으로부터 金·胎양부밀법을 부족받았으며, 《왕오천축국전》으로 그 이름을 세상에 떨친 바 있는 혜초는 신인종 승려로서 입당하여 금강지·불공 兩 密敎三藏의 제자가 되어 금강계밀법을 부족받았던 것이다. 이들 신라 밀교승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진 밀교승들이었을까? 불가사의는 《大日經供養次第法疏》를 남길 만큼 태장계의 事相法에 능통한 밀교사상가였으며, 일본 진언종 개산조인 홍법대사 공해와 함께 혜과화상으로부터 금강계·태장계·소실지법 등의 三部密法을 부족받은 혜일은 《불공견삭다라니경》의 제17품 <不空羅索心印品>을 남겨놓을 만큼 결인(Mudra)의 대가였다. 혜초는 금강지·불공 양삼장을 스승으로 모실 만큼 밀법에 심취해 있었다. 그가 남긴 《千鉢經》序文은 금강지삼장을 비롯한 밀교대가들의 동태과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스리랑카에서 將來해 온 그리고 어쩌면 그가 번역했음지도 모르는 《千鉢經》은 밀교경전의 교리발달사 연구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경전이기도 하다. 그 밖에 선무외삼장의 부족제자로서 당나라 승 順曉 아사리와 惠果和尚의 스승이었던 義林과 玄超스님이 있다. 이렇다 할 유작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상과악이 어려운 상태이나 언젠가는 규명되어야 할 신라 밀교승들이었다.

唐朝의 純密盛行과 入唐 新羅 密敎僧들의 思想

— 순밀사상의 신라전래와 그것의 한국적 전개 —

宗釋(全東赫)

불교학과 교수

- | | |
|----------------|-----------|
| I. 新羅 純密僧의 動態 | 2. 慧超의 사상 |
| II. 新羅 純密僧의 思想 | 3. 惠日의 사상 |
| 1. 不可思議의 사상 | |

中國史書에는 新羅 純密僧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록들은 통일을 완수한 신라불교계가 뒤늦게나마 중국에 새로 등장하여 큰 성과를 이루고 있던 新佛敎 密敎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신라불교계에 그 어떤 지각변동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하 이들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唐에 있어서의 純密敎 성행과 그에 따른 신라불교계 특히 神印·總持 두 밀교종파의 動向과 입당 밀교승들의 思想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당에 있어서의 純密盛行을 논하기에 앞서 잠시 玄奘의 귀국 이후의 당불교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그 당시 당에는 玄奘三藏을 필두로 해서 實叉難陀·義淨·菩提流志 같은 대가들에 의해 般若, 瑜伽, 婆沙 그리고 華嚴經, 根本有部律, 大寶積經 등의 大小乘三藏에 관한 많은 경전들이 역출되며, 그 결과 중국역경사에 있어 하나의 금자탑을 쌓아 놓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과정에서 우연이라 할까 의도적이라 할까 어떤 일인지 밀교경전은 제외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 데에는 추측컨대 비밀불교라는 신불교 사상을 접하지 못하고 唯識을 중심으로 하는 대소승에 통달했던 현장삼장 자신과 그 당시 아직 일반화되지 못했던 밀교 스스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현장의 歿(664) 이후 점차 해소되고, 善無畏와 金剛智 양 밀교삼장의 장안 입경 이후에는 그 동안 기승을 부리던 대소승 경전들의 역경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머 굴에 쌓여 있던 진언 밀교경전들이 계속 전래되고 역출되게 된다.¹⁾ 따라서 중국사서에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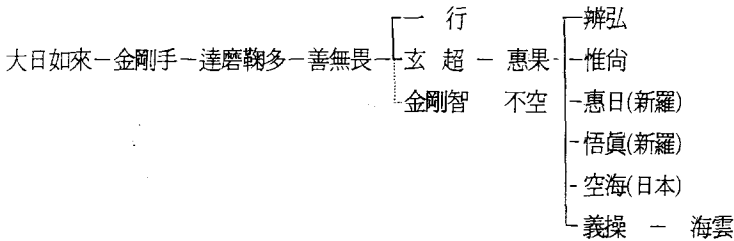
이는 신라 밀교승에 대한 기사는 당시 당불교계에 신평을 불러 일으킨 순밀교에 대한 신라불교계의 동향을 볼 수 있게 해준은 물론 순밀교에 대한 개종 초기에 있던 신인·총지 두 밀교종파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I. 新羅 純密僧의 動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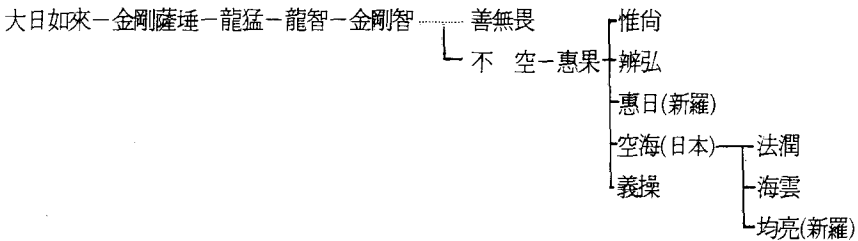
먼저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²⁾(도표 1)와 <大毘盧遮那大教王相承師資血脈圖>³⁾(도표 2)에 기록되어 있는 밀교승들의 혈맥을 도표로 나타내어 당시 당에서 활약하고 있던 신라 순밀승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도표 1> 양부대법상승사자부법기

A. 태장계



B. 금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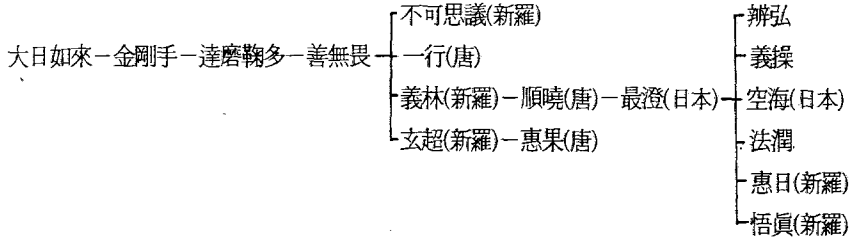
1) 開元 원년부터 18년까지(713~730)의 역출경전은 《開元釋教錄》에, 그리고 그 이후 貞元 15년(799)까지의 역출경전은 《貞元新定釋教目錄》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양 석교목록들은 당시의 譯經史를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록들이다. 小野玄妙 박사는 654년 역출된 《陀羅尼集經》이 685년에야 비로소 入藏된 사실을 예로 들면서 玄奘三藏 在世時에 있었던 秘密經典 천시 경향을 밝히고 있다(《佛書解說大辭典》 별권 164항).

2) 大正藏 51, pp. 786~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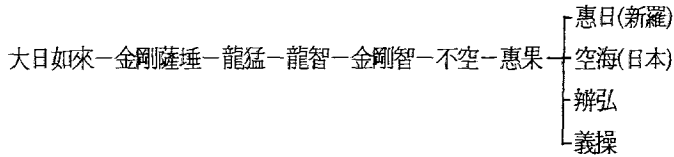
3) <胎金血脈圖>, 《大日本佛敎全書》 65, No. 496.

〈도표 2〉 대비로자나대교왕상승사자혈맥도

A. 태장계



B. 금강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당나라에는 선무외삼장의 胎藏界密法과 금강지삼장의 金剛界密法을 배우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玄超·不可思議·義林·惠日·悟眞 등의 신라 승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들 중 특히 현초·불가사의·의림 등은 일본 최초의 밀교승 공해의 입당연도 804년보다 50여 년이나 일찍 입당하여 태장계법의 대가 천축승 선무외의 전법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앞의 도표에 나타난 신라 밀교승들의 구법내지 전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사를 보면서 이들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고찰해 보도록 하자. 먼저 남들보다 먼저 입당하여 선무외삼장의 문하에서 一行과 함께 태장계밀법을 배운 玄超아사리?(680~750)⁴⁾에 대한 기사를 보니 唐傳은

그때 선무외삼장은 비로자나대교왕경을 가지고 와 대홍선사 사문 一行과 보수사 新羅國 사문 玄超에게 전하였으며, 사문 현초아사리는 大毘盧遮那大教王經 및 蘇悉地教를 청룡사 동담원 惠果아사리에게 전하였다.⁵⁾

4) 생몰년은 선무외삼장(637~735)과 惠果화상(?~805) 그리고 一行스님(673~727)의 생몰년 및 선무외삼장의 장안입경 연도(716) 등을 감안하여 推定한 것이다.

5) 大正藏 51, pp. 786下~787上.

스승의 위는 惠果和尚이다. 無畏三藏和尚의 제자인 현초화상으로부터 대비태장비로자나 대유가대교왕과 소실지대유가법 및 제존유가법을 배웠다. 현초화상께서는 하나하나 손수 그 뜻을 가르쳐 주셨다.⁶⁾

라 하여 현초가 《大日經》《金剛頂大教王經》《蘇悉地經》 등의 三部秘法과 제존유가법을 선무외삼장으로부터 부촉받고, 그 비법을 다시 중국의 혜과에게 전수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⁷⁾ 따라서 위의 기사는 日本 京都大學의 久原文庫藏本에 수장되어 있는 현초화상의 초상화와 더불어,⁸⁾ 당시의 중국 및 일본에 있어서 현초화상이 차지한 위상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초의 초상화가 언제 그려졌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현초가 일본 진언종의 개조 弘法大師 空海(774~835)의 法祖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공해나 그의 문도들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

또 海雲의 《兩部大法柜承師資付法記》(이하 《付法記》 표기)에는 그 이름이 빠져 있으나 선무외삼장의 제자로서 《大日經供養次第法疏》(이하 《供養次第法疏》 표기)라는 명저를 저술한 신라 밀교승 不可思議?(700~770)¹⁰⁾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곧 그는 자신이 쓴 《공양차제법소》에서

금릉왕이 조성한 탑 근처에서 가피를 구하니 ‘공양차제법’ 홀연히 공중에 나타나며 금자가 환하게 비추었다. 소승 불가사의 다행스럽게도 화상을 직접 뵈고 자문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들은 바의 요점만을 기록하노라.¹¹⁾ 이 서문을 지은 자는 新羅 零妙寺僧 不可思議이다. 바라는 바는 이 경전을 보는 자마다 본불생의 이치를 증득케 되기를…….¹²⁾

6) 《大唐青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大正藏 50, p. 295上).

7) 善無畏三藏 역출, 《大毘盧遮那經廣大儀軌》(大正藏 18, p. 108中)에도 ‘大日如來—金剛手—達磨鞞多—善無畏—玄超—惠果—法潤’이라 하여 현초스님을 선무외삼장의 부촉제자로 인정하고 있다.

8) 현재 대정장경에도 수재되어 있다(大正藏 圖像錄 2, 47항).

9) 梶尾祥雲 박사도 신라승 현초가 《攝大儀軌》(大正藏 No. 850)와 《廣大儀軌》(大正藏 No. 851)의 비법을 선무외삼장으로부터 부촉하여 그것을 혜과아사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듯이, 兩部秘法 그 중에서도 특히 胎藏界血脈에 있어서 현초스님이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현초스님의 초상화는 이러한 현초스님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 진언종의 開祖 弘法대사 空海의 부촉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해 자신이나 아니면 그의 문도들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梶尾祥雲, 《曼荼羅乃研究》上卷 108항, 高野山대학, 1985).

10) 生沒年代는 선무외삼장, 일행, 현초 등의 활동연대를 감안하여 추정한 연도이다.

11) 和上受請於金栗王所造塔邊求聖加被此供養法忽現空中金字炳然(略)厥號善無畏三藏和上卽是 小僧不可思議 多幸面諮和上 所聞法要隨分沙記(大正藏 39, p. 790中).

12) 此文造人新羅零妙之寺釋僧不可思議(略)願此大見獨知於本不生理中證(大正藏 39, p. 807下).

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신라 영묘사의 스님이었던 그는 입당하여 선무외삼장으로부터 ‘대일경공양차제법’을 배운 후 그것에 자기 소견을 가미하여 疏로써 남겼던 것이다. 그도 지적했듯이 《공양차제법소》는 本不生의 理를 증득케 하는 次第法으로서 대장제만다라 제존에 대한 예배와 공양 등의 수행절차를 설해 놓은 수행작법서이다. 선무외삼장은 《대일경》을 주석할 때 이론가인 一行(673~727)에게는 권6까지의 주석을, 그리고 실천법에 통달했던 不可思議?(700~770)에게는 권7의 공양차제법에 대한 주석을 쓰게 했던 것이다. 《大日經疏》(20권)와 《大日經義釋》(14권)¹³⁾ 그리고 《공양차제법소》(2권)는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다. 또 불가사의와 마찬가지로 海雲의 《부법기》에는 그 이름이 빠져 있으나 선무외삼장의 부법제자로서 신라 밀교승 義林?(703~805)¹⁴⁾의 이름이 《順曉阿闍梨付法文》과 《內證佛法相承血脈譜》에 보인다. 곧 그곳에는

대삼장 바라문왕자는 법호를 선무외라 하는데 대당국에 와 신라국승 의림에게 법을 부촉하였다. 의림은 국사이며 대아사리이다. 현재 103세로서 신라국에서 법을 크게 전하고 있다. 의림은 大唐國 제자 順曉에게 법을 전하니 그는 鎮國道場의 대덕아사리이다. 순효는 일본국 제자 最澄에게 법을 전하니 승 최징은 제4대 부촉제자이다. 唐 貞元 21년 4월 19일 쑤.¹⁵⁾

삼가 순효화상부법기를 보니, 사문 의림아사리는 진국도량 대덕아사리로서 선무외삼장을 스승으로 섬기니, 삼장은 대비태장 만다라묘법을 사문 의림에게 부촉하였다. 현재 103세로서 신라국에서 법을 전하고 있으니 그는 일행선사의 법제이다.¹⁶⁾

라 하여, 신라 밀교승 의림이 선무외의 대비태장만다라비법을 부촉받은 제2부법자로서 805년(경원 21) 당시 신라에서 국사의 자리까지 얻은 진국도량의 대아사리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13) 一行記로 전해지고 있는 《大日經疏》와 《大日經義釋》과의 관계는 아직 미해명된 점이 많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大日經義釋》의 서문의 내용에 의해, 일행이 선무외삼장의 구술을 필기한 것을 《대일경소》, 그리고 이것을 다시 智儼과 溫古가 再治한 것을 《대일경의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14) 현초나 불가사의의 생몰연대와 마찬가지로 생몰연대는 추정연도이다.

15) 大藏婆羅門王者法號善無畏(略)至大唐國轉付囑傳法弟子僧義林亦是國師大阿闍梨一百三歲今在新羅國轉大法輪又付大唐弟子順曉是鎮國道場大德阿闍梨 又付日本國弟子僧最澄轉大法輪僧最澄是第四付囑傳授唐貞元二十一年四月十九日書(《內證佛法相承血脈譜》, 《傳教大師全集》 권1, 244항).

16) 謹案順曉和尚付法記云 沙門義林阿闍梨者是鎮國道場大德阿闍梨也 師事善無畏三藏 三藏以大悲胎藏曼荼羅妙法付囑沙門義林阿闍梨 一百三歲今在新羅國轉大法輪 是則一行禪師法弟(《內證佛法相承血脈譜》, 《傳教大師全集》 권1, 242항).

이상 우리는 중국 및 일본의 기록들을 통해서 720년 무렵의 당나라에는 선무외삼장의 大悲胎藏密法을 배우기 위해 바다를 건너 중국에 온 신라 밀교승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현초·불가사의·의림과 같은 훌륭한 밀교승이 있어 사승 선무외로부터 부촉받은 태장만다라묘법을 당승 혜과 및 순효에게 부촉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국 신라에 귀국한 후에는 국사로서 진호국가도량을 열거나 밀교경전의 주석서를 주석하는 등 그 활약상이 아주 컸음을 알 수 있었다. 확실한 자료나 기사가 없어 분명히는 알 수 없으나 상기의 書들이 보여주듯이 당에서의 이들의 활약상을 볼 때 이들 신라 밀교승들은 본국 신라에 귀국할 때 선무외삼장 역출의 밀교경전 24부는 말할 것도 없이 선무외와 더불어 당시 장안에서 활약하고 있던 금강계밀법의 대가 금강지삼장이 저술한 25부의 금강계 계통의 밀교경전 또한 신라에 장래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 현초·불가사의·의림과 동시대에 활약했으면서도 이들 태밀승들과는 달리 금강계밀법을 부촉한 신라승에 慧超와 惠日 그리고 悟眞이 있다. 이들 금강계밀법 부촉의 신라 밀교승 가운데 먼저 《往五天竺國傳》¹⁷⁾과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¹⁸⁾(이하 《千鉢經》이라 표기) 序文의 저자인 혜초에 대해 살펴보면, 혜초는 30세 전후인 개원 10년경(722) 남해 루트로 천축국을 향한 구법에 나섰으며, 그로부터 5년 후인 727년(개원 15) 11월에는 5년여의 인도여행을 마치고 安西의 龜茲國(Kutscha)에 도착하였으며, 3년 뒤인 730년경(개원 18)에는 당나라의 서쪽 장안에 도착하여 금강지삼장의 문하에 들어가 제자가 되었으며, 3년 뒤인 733년(개원 21)부터 740년(개원 28)까지의 8년 간은 사자국 여행 때 구한 바 있는 《천발경》의 指授를 師僧 금강지삼장으로부터 받아 그해(740) 12월 15일 드디어 번역을 완료했으나, 금강지삼장은 안타깝게도 그 다음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금강지삼장의 사후 1년 뒤인 742년에는 금강지삼장의 제자로서 사형벌에 속하던 불공삼장의 제자가 되어 금강계법을 전수받는 등 밀교수행자로서의 수업을 꾸준히 쌓아갔다. 건중 원년인 780년 혜초는 불공삼장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 낸 밀교수행도량 오대산에 들어가 《천발경》을 재록하면서 한 많은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¹⁹⁾

또 금강계의 밀교승 혜초에 뒤이어 입당 유학해서 금·태양부의 밀교를 부촉한 신라 밀교승에 惠日?(750~820)과 悟眞?(?~789)²⁰⁾이 있다. 곧 《大唐靑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에

17) 大正藏 51, No. 2089.

18) 大正藏 20, No. 1177上.

19) 혜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藤田風八,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 《大日本佛教全書》 권73.

高南順次郎, 《慧超傳考》, 《大日本佛教全書》 권73, 《慧超往五天竺國傳について》, 《宗教研究》 11권 7호.

大谷勝眞, 《慧超往五天竺國傳の一二について》(小田先生頌壽記念 《朝鮮論集》, 1934).

松本文三郎, 《千鉢經序について》, 《宗教研究》 3권 2호.

는

건중 2년 신라국승 혜일이 본국의 선물을 가지고 와 화상에 진상하며 태장·금강계·소실지 그리고 제존유가 37법을 전해 주기를 청한 이후 열심히 정진하여 정통을 이룬 후, 본국에 돌아가 대교를 흥포하였다. 건중 2년 신라국승 오진 역시 태장비로자나 및 제존에 대한 지념법 등을 부촉받았다. 정원 5년 중천축국에 이르러 대비로자나경 범본 및 기타 경전을 얻었으나 (그만) 토번국에서 죽다.²¹⁾

라 하여, 建中 2년(781)에 혜일과 오진이 금·태 양부의 부촉전법자인 혜과아사리로부터 제존유가법 등을 전수받았으며, 본국 신라에 귀국한 후에는 사승으로부터 부촉받은 이들 밀교비법을 신라에 흥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곧 이들 두 신라 밀교승 가운데 오진은 안타깝게도 본국 신라에 귀국하지 못하고 이국땅 토번국에서 불귀의·몸이 되고 말았지만, 혜일만큼은 이무침 역의 《불공견삭다라니경》(700년 역출)에 〈不空羅索呪印〉(1권)을 부가하여²²⁾ 呪印(Mudra)없이 陀羅尼만 수재하고 있던 이 경을 완벽한 하나의 경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적 과업을 이룩해 내는 등 밀교 부촉전법자로서 그 명성과 활약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확실한 기록이 없어 단언을 내릴 수는 없겠으나 惠日은 귀국시 선무외·금강지 양삼장의 역출 밀교경전과 나아가서는 이들 양삼장의 금·태 양부 밀법을 하나로 묶어내기를 시도했던 不空三藏과 惠果和尚이 역출한 밀교경전들 또한 본국 신라에 장래했음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II. 新羅 純密僧의 思想

우리는 전항 ‘신라 밀교승의 동태’에서 중국 및 일본사서에 보이는 신라 밀교승들의 동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라에도 선무외삼장과 금강지삼장과 같은 밀교사상가들에 의해 정립된 순밀사상, 말하자면 선무외삼장의 태장계밀법과 금강지삼장의 금강계밀법, 그리고 불공삼장과 혜과화상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金·胎 兩部 不二思想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

20) 혜일과 오진의 생몰연대 또한 불공삼장(705~774)과 공해(774~835)의 생몰년 및 활동연도를 감안해서 추정할 연대이다.

21) 建中二年新羅國僧惠日持本國信物奉上和上求授胎藏金剛界蘇悉地等并諸尊瑜伽三十本已來授訖精通後時却歸本國廣弘大教(略)同年新羅國僧悟眞授胎藏毘盧遮那及持念法等至貞元五年往於中天竺國大毘盧遮那經法夾餘經吐蕃國身歿(大正藏 50, p. 295中).

22) 不空羅索心印品第十七沙門惠日麟續附十七品(大正藏 20, pp. 419中~420下).

라, 나아가서는 선무외·금강지·불공삼장들에 의해 역출된 밀교경전 또한 전래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우리는 앞에서 불공삼장(705~774)을 정점으로 해서 당의 불교를 새롭게 쇄신시키고 있던 순밀사상을 배우기 위해 입당유학했던 신라 밀교승에 불가사의·현초·의림(이상 胎藏界密法)과 혜초(金剛界密法) 그리고 혜일과 오진(金·胎 兩部 密法) 등이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금강지삼장과 선무외삼장 그리고 불공삼장 및 혜과화상의 금·태양부의 순밀사상이 신라에 전래되었음을 고찰해 보았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고찰내용과 신라 순밀승들이 남긴 몇 개의 자료(찬술서, 서문, 잡문 등)들을 근거로 해서 그 사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不可思議의 사상

태장계밀법을 중국에 전한 선무외삼장의 부촉제자인 불가사의 사상을 논하는 데 있어 유일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大日經》 연구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바로 불가사의 찬술의 《공양차제법소》이다. 곧 태장계밀법의 대가인 선무외삼장은 태장계밀법의 기본이 되는 대일경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제자인 一行에게는 권6까지의 주석을, 그리고 신라인 제자인 불가사의에게는 권7, 《공양차제법》의 주석을 쓰게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일경》의 주석서 《대일경소》(20권)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불가사의에 의해 주석되어진 《공양차제법소》란 어떠한 내용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상사적인 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저자 불가사의의 말부터 직접 보도록 하면, 불가사의는 그 서문에서

공양차제법, 그것은 阿字本不生 證理를 위한 지침서 바로 그것이다.²³⁾

라고 하여 공양차제법이 《대일경》의 중심교리인 阿字門의 증득을 위한 실천작법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실천작법서를 선무외삼장은 왜 그것도 중국인도 아닌 異國人 不可思議에게 쓰게 했을까? 그리고 주석을 쓰게 하려면 전체를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왜 이론 부분과 실천작법 부분을 따로 쓰게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 불가사의만이 가진 어떤 특수성, 말하자면 불가사의야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제1의 胎藏界事相作法家라는 특수성을 가진 승려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²⁴⁾ 이하 논을 바꾸어 불가사의란

23) 顯此文見獨知於本不生理中證(大正藏 39, p. 807下).

24) 대일경 7권 36품 가운데 앞부분인 6권 31품은 無行스님이 將來해 온 범본을 선무외삼장이 일행과 공역한 것이며(725년), 뒷부분인 제7권 5품(공양법)은 앞부분 6권 31품의 공양염송차제를 설명해 놓은 것으로서 선무외삼장 자신이 將來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7권 공양차제법은 앞부분

어떤 사상을 가진 사상가이며 실천가였는지 《공양차제법소》의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그는 〈眞言行學處品〉 제1에서 공양차제법의 대의를 서술하면서

阿字 등의 진언문은 그 이치가 묘한 것이므로 그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래의 가지력과 呪印과 眞言으로 해야 하며, 나아가서 灌頂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이것을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²⁵⁾

라 하여, 대일경의 중심교리가 阿字本不生에 있으며, 이 아자문의 증득을 위해서는 우선 관정을 받게 한 후, 그리고 나서 三密瑜伽法(yoga)을 닦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그는 供養次第에 대해서

供養에는 理供養과 事供養이 있다. 理供養이란 이치에 계합시켜 증입시킴을 말하며, 事供養이란 마음과 힘을 다해 향과 꽃을 부처님전에 공양드림을 말한다. 次第란 만다라상의 제존들을 청하여 예배·공양드리고 보내드리는 전후작법순서를 말한다.²⁶⁾

라 하여, 공양차제법이 阿字本不生의 入證을 설하는 理供養과, 입증케 하는 실천작법으로서의 작례와 發遣 등의 修習次第를 설하는 事供養, 다시 말해 아자본불생의 입증을 위한 진언행자들의 신구의 삼밀유가에 대한 修行次第 바로 그것이라 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又令本心離垢故’(大正藏 18, p. 45上)의 本心을 ‘令悟本不生之理之心也’(大正藏 39,

6권보다 늦게 성립했음은 분명한 일이며 그 때문인지 제7권 공양차제법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의례집들이 몇 종류 보인다. 곧 《大日經持頌次第儀軌》 제1권(大正藏 18, No. 860), 《大毘盧遮那佛說要略念誦經》(大正藏 18, No. 849), 그리고 藏譯인 《大毘盧遮那現等覺所屬供養儀軌》(東北 No. 2664), 《毘盧遮那現等覺恒特羅攝義》(東北 No. 2665) 등이 그것들인데, 이들 중 한역의 《대일경지송차제의례》는 《공양차제법》과 同本異譯이며, 《요약염송경》은 《공양차제법》을 기본으로 해서 요점만을 추출하거나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튼 不可思議 찬술의 《供養次第法疏》은 대일경 6권 31품의 供養念誦次第를 설해 놓은 의례서로서뿐만 아니라, 대일경에 대한 공양법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근본문헌으로서도 종래 중요시되어 왔다. 대일경 공양법과 불가사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那須政隆, 〈大日經供養法について〉(《智山學報》新9호).

神林隆淨, 〈大日經開題〉(《國譯一切經》비밀부 권1).

25) 所謂阿字等門妙明其理(略)是故以如來加持神力對以秘印導以眞言(略)未經灌頂禁其輒聞(大正藏 39, p. 790上).

26) 供養者理事供養 理者會理入證(略)事者盡心竭力營辦香花供養佛海(略)次第者作禮發遣之前後次第也(大正藏 39, p. 790下).

p. 790下)라 설명하여, 衆生의 本心을 本不生의 이를 깨닫게 하는 힘, 다시 말해 自性淸淨心 바로 그것이라 설하고 있으며, 또

부처님을 뵈고 예배하고 공양드리는 것과 아사리에게 공양드리는 것과는 다름이 없는 것이니 그 까닭은 아사리는 5가지의 진언과 삼마디심 그리고 印(Mudra)으로 장엄되어 있는 존귀한 분이기 때문이다.²⁷⁾

라 하여 진언과 삼마디(Samādhi)심 그리고 印(Mudra)의 三密로서 장엄된 사람은 佛과 다름없으므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삼밀로 장엄된 아사리에게 예배드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相應에 대한 설명으로서

상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존을 관하는 본존관이요, 둘째는 자신을 본존으로 관하는 자신본존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해서 마음에 산란이 없어진 상태를 상응이라 하는 것이다²⁸⁾ 하여, 相應을 본존과 眞言行者의 不二一體의 三昧境으로 설하고 있다. 이상 우리는 진언행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불가사의의 주장을 살펴보았으나, 그 결과 증생의 본심 그것은 自性淸淨心 바로 그것이기에, 佛과 하나도 다름없는 不二一體의 것임을 확신했과 아울러 그러한 확신의 구체적 표현으로 진언과 삼마디와 印의 三密로 全身을 장엄하면 일생 동안에 阿字本不生의 理를 증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견지, 그것이 바로 불가사의가 보는 밀교행자의 기본적 修習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또 <增益守護淸淨行品> 제2에서 이 품의 이름과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계를 지키어 몸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일컬어 守護라 하는 것이며, 닭고닭아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增益이라 하는 것이다. 몸가짐을 흠어지지 않게 하고 마음을 부처님께 두어 자기는 물론 남도 함께 깨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품의 목적이다.²⁹⁾

라 하여 이 품의 목적이 품의 제목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수호와 증익에 있음을 알리면서, 守護란 三密戒를 호지하는 것이며, 增益이란 삼밀계의 호지에 의해 얻어지는 자연적 결과로서의 佛果, 말하자면 金剛不壞身으로서의 自悟와 悟他를 얻는 것, 다시 말해

27) 若欲見佛禮拜 若欲供養佛 禮拜供養此人 與佛無異也 何以無以者 以五種眞言心及印等 莊嚴其身故(大正藏 39, p. 791上).

28) 相應者有二 先觀本尊觀本尊觀自身作本尊此心不散亂言相應也(大正藏 39, 791中).

29) 護戒保身言守護 修必得果言增益(略) 用不壞身住佛心 自悟悟他此品所趣(大正藏 39, p. 793下).

장애란 生死流轉과 三毒煩惱를 근본으로 하는 것인데, 생사유전케 하는 이러한 삼독번뇌가 본래 근본이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일컬어 장애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이다.³⁰⁾

라는 설명처럼, 生死流轉의 근거인 삼독번뇌가 본래부터 不生이라고 확신하는 경지인 障礙三昧를 얻는 것, 그것이 증익이며 수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阿字本不生을 통해 일체제법의 本不生을 깨달아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守護이며 增益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歸命의 설명으로서,

귀명이란 중생이 가장 보배로 삼는 목숨을 진언과 結印 등을 사용하여 삼보에게 봉헌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불보살님은 이 실상지인 진언으로 몸과 마음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상지인 진언을 지송하게 되면 實相智尊에 두루 계합하게 되며, 그 결과 시방 부처님께 두루두루 예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³¹⁾

라 하여 실상지인 진언 지송을 통해서 實相智尊인 十方佛에 遍禮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실상지까지도 깨닫는 것, 그것을 귀의라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진언다라니야말로 十方佛과 自身佛에 귀의하는 최고의 방편문임을 불가사의는 귀의의 설명을 빌려 역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 發菩提心を 설명하기를

내 몸과 부처님의 몸이 본래 차별없으며 불보살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 또한 똑같은 것이다. 진언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인데, 眞言의 이와 같은 功能을 아는 것, 그것을 發菩提心이라 하는 것이다. 곧, 보리심이란 自性의 淸淨함을 여실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³²⁾

하여 自身과 佛身이 無差別平等의 淸淨心, 바로 그것임을 아는 것이 발보리심이며, 발보리심케 하는 능력과 위신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진언다라니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廻向에 대해,

30) 爲障者生死流轉三毒煩惱爲根本 悟三毒煩惱本不生卽是除障也(大正藏 39, p. 793 下).

31) 歸命者衆生所重命爲最珍 用此寶藏奉獻三寶 用眞言印等也(略) 眞言卽是實相智 諸尊以實相智爲身心 以實相智眞言誦 卽遍至實相智尊(略) 故言卽能遍禮十方佛(略) 此眞言智外無妄 外無妄處卽是眞言自身 若誦此眞言悟自眞故言歸依(大正藏 39, p. 794 上).

32) 我身佛身旣無別 佛菩薩智同我智 此眞言令悟此法 能令知云發菩提(略) 菩提心者自性淸淨自覺也(大正藏 39, p. 794 中).

부지런히 진언을 염송해서 여실하게 본법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향이라 한다.³³⁾

하여, 여실하게 본법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향인데 이 회향은 眞言陀羅尼의 지송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法界加持를

제법자체를 법계라 한다. 곧 제불실상과 진언실상, 그리고 중생실상 이것이 법계인데 이 세 가지가 서로 加持하는 것을 일컬어 법계가지라 하는 것이다.³⁴⁾

고 주석하면서, 諸法自體를 法界라 정의함과 동시, 佛과 중생 그리고 매개체로서의 진언 다라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법이요 법계라고 재론하면서, 따라서 加持 곧 법계가지라 하는 것은 佛과 중생 그리고 진언다라니의 총체적인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또

세존은 일체중생을 남김없이 두루두루 加持하여 평등중자로 만드신 후 법계태장삼매에 드신다. 곧 하나하나의 중자가 한결같이 모두 연화대에 앉아 계시는 비로자나부처님이시며 끝없이 장엄되어 있는 권속들이므로 그 모두가 大悲만다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름하여 在聖胎俱舍라 하는 것이며, 그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자를 여래요 해탈자라 하는 것이다.³⁵⁾

라 하여, 일체중생이 모두 연화대에 앉아 있는 비로자나불이며 무진장엄의 大悲曼荼羅 자체인데 衆生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在聖胎俱舍라 하며, 이 주머니(俱舍)에서 나와 해탈한 중생을 일컬어 如來라고 설명하면서, 중생과 佛의 평등하면서도 차별한 관계를 명쾌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三昧耶에 平等·本誓·除障·警覺의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삼매야란 平等과 本誓와 除障과 警覺이란 뜻이다. 平等이란 일체중생의 身口意와 여래의 신구의가 똑같다는 뜻, 다시 말해 중생이 초발심하여 十地波羅蜜을 원만히 구족하게 되면 중생의 선정과 지혜는 여래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뜻이며, 또 本誓라 하는 것은 일체

33) 勤苦念誦此眞言歸眞本法云廻向(大正藏 39, p. 794下).

34) 如是諸法自體名爲毘富羅法界 諸佛實相眞言實相衆生實相皆是毘富羅法界 以是更相加持故名爲法界加持 (大正藏 39, p. 794下).

35) 世尊普遍加持一切衆生 皆作平等種子竟卽是入於遍法界胎藏三昧 觀此一一種子皆是蓮華臺上毘盧遮那 普門眷屬無盡藏藏亦與大悲曼荼羅等無有異 而諸衆生未能自證知 故名在聖胎俱舍 若出藏時 卽是如來 解脫也(大正藏 39, p. 794下).

중생이 모두 성불 가능한 까닭에 여래께서 중생성불의 대서원을 세워 중생이 있는 곳마다 本願을 좇아 진언을 지송하여 그 중생으로 하여금 금강성을 성취케 하는 것을 말하며, 除障이라 하는 것은 여래법계(如來性)인 일체중생이 一念無明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여래께서 진언으로써 서원을 세워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 진언을 지송케 하여 일생중에 無垢眼을 획득케 하여 덮여 있는 무명을 모두 제거시키는 것을 말하며, 또 警覺이라 하는 것은 일체중생 모두 무명의 잠에 빠져 여래와 같은 큰 공덕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진언으로 감동케 하여 각성케 하는 것을 말한다.³⁶⁾

라 하여, 일체중생의 身口意 三業과 여래의 三密이 동등하므로 중생과 여래는 필경 평등한 것으로, 따라서 여래는 일체중생을 모두 성불시키겠다는 본서를 세운 것이며, 그러나 중생에게는 일념무명이 남아 있어 이러한 평등함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여래께서는 그 무명의 장애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가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마음이란 본래 여실한 것이기에 일체 번뇌망상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삼세 여래께서 나누시는 여러 가지 방편은 모두가 이러한 一大事因緣 때문, 곧 중생들로 하여금 除障케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넓은 의미로 三昧耶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자후로써 제법의 평등을 설하시고 대서원을 세워 일체를 여래와 같게 하시는 것으로서, 여래는 중생들로 하여금 佛智見을 열게 하기 위하여 중생을 경각시키시는 것이다. 삼매야를 一切如來金剛誓戒라고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³⁷⁾

하면서, 중생의 無垢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불생하다고 하는 如實相의 開示 그 것이야말로 여래께서 출세하신 一大事因緣이라 단언한 후, 때문에 여래의 삼매야는 이러한 사실을 중생에게 알려 중생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켜 塵垢無明을 제거케 하려는 불퇴전의 金剛誓戒 바로 그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36) 三昧耶者是平等義 是本誓義 是除障義 是警覺義 言平等者(略) 見一切衆生種種身語意皆悉與如來等禪定智慧如實相身亦畢竟等初發心時與智波羅蜜滿時亦畢竟等(略) 言本誓者(略) 一切衆生悉有成佛義故即時立大誓願(略) 若有衆生隨我本願發此誠實言時 亦令彼所爲事業皆悉成金剛性(略) 言除障者如來見一切衆生悉有如來法界 但有一念無明故常在目前而不覺知 是故發誠實言(略) 若我誓願必當成就者令諸衆生隨我方便說此誠實言時乃至於一生中獲無垢眼障蓋都盡(略) 言警覺義者如來以一切衆生皆在無明睡故於是功德不自覺知 故以誠言感動令得醒悟(大正藏 39, pp. 794下~795上).

37) 心如實相一切塵垢本來不生 三世如來種種方便悉皆爲此一大事因緣故 卽是除障之義 結云三昧耶者卽是心定獅子吼說諸法平等義 故立大誓願 當令一切得如我 故欲普爲衆生開佛智見故 是故以此誓覺衆生及諸佛故 是故此三昧耶名爲一切如來金剛誓戒(大正藏 39, p. 795中).

訶(Ha)字는 근원이란 뜻인데 대승의 근원은 菩提心이다. 일체는 근원이 없는 것이므로 일체 모든 것에서 집착을 떠나보내는 것을 淨菩提心이라 하는 것이다. 정보리심 그것은 성불케 하는 근원인 동시에 정법을 세우게 하는 종자인 것이다.³⁸⁾

라 하여, 보리심이야말로 대승의 因이요 성불케 하는 眞因이요, 正法種子라 설하고 있다. 그는 또 〈供養儀式品〉 제3에서 阿字를 설명하면서

모든 眞言의 근본은 阿字로서 諸法本不生이란 뜻을 갖는다. 만일 阿의 소리가 없다면 나머지 소리도 없는 것이 되므로 아자는 모든 글자의 어머니요 일체 모든 진언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아자는 모든 진언 가운데 가장 신묘한 것으로서 일체의 진언 속에는 모두 아자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자를 지송하게 되면 일체글자가 가진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다.³⁹⁾

라 하여, 阿字야말로 諸法本不生의 뜻으로서 一切眞言의 生處요, 일체진언의 핵심이기에 따라서 阿字를 지송하면 일체자가 가진 德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으며, 또

大悲法이란 근기를 좇아 응해 주는 것을 말함이니, 阿字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곧 여래께서는 중생의 근기를 좇아 나부시는 것처럼, 阿字도 굴리면 부처님되는 것이니 어서 阿字를 굴려 대일여래 이루도록 해야 한다.⁴⁰⁾

고 하여, 阿字 또한 大悲처럼 근기에 따라 顯現하는 것이기에 阿字에 無盡藏의 공덕이 들어 있음을 阿字觀修行 설명에 앞서 강조하고 있으며, 또

일체법의 일어남을 본다는 것은 본래 生處 없음을 보는 것이며, 본래 생처 없음을 본다는 것은 여실하게 自心을 아는 것, 곧 일체의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자심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로자나부처님은 오직 阿字만을 진언이라 하시는 것이다.⁴¹⁾

38) 訶字是因緣義 所謂大乘因者即是菩提心 以一切因本不生故 乃至離因緣故 名爲淨菩提心 淨菩提心是成佛眞因正法幢旗之種子(大正藏 39, p. 797下).

39) 眞言心卽阿字是諸法本不生義 若離阿聲則無餘字卽是諸字之母卽一切眞言生處也(略) 此字於眞言中最爲上妙(略) 是故一切眞言住於阿字 猶住此故誦之卽生他一切字德(大正藏 39, p. 799中).

40) 大悲之法應機顯現 謂卽能現阿字也 次應兩足衆生爲兩足故 卽轉阿字成兩足尊 故言次當轉阿字成大日牟尼也(大正藏 39, p. 800上).

41) 如是見一切法生卽是見本不生際 若見本不生際卽是如實知自心 如實知自心卽是一切智智故毘盧遮那唯以

라 하여, 一切法本不生이야말로 일체제법의 진실상이기에, 일체법의 본불생을 보는 것을 (대일경에서 말하는) 如實知自心이라 하며, 一切智者라 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法身 大日 如來께서 오직 이 阿字만을 진언다라니라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는 〈眞言事業品〉 제5의 無相法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

阿字를 일컬어 누가 本不生이라 했는가?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으니, 첫째는 비밀석이요, 둘째는 비밀 가운데 비밀석이요, 셋째는 비밀하고 비밀한 가운데의 비밀석이다. 첫째 비밀 석이라 하는 것은 비로자나께서 설하신 本不生說을 일컬음이요, 둘째의 비밀 가운데의 비밀석이라 하는 것은 阿字 스스로가 설하는 본불생을 일컬음이요, 셋째 비밀하고 비밀한 가운데의 비밀석이라고 하는 것은 本不生의 이치 스스로 본불생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일컬음이다. 공양차제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본불생이라는 일대사를 설하고 있다. 이 서문을 쓴 사람은 신라 영묘사 스님인 不可思議다. 원하는 바는 이 경을 보는 자마다 본불생의 이치를 증득케 되기를…….42)

이라 하면서, 阿字本不生을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곧, 대일여래가 설하셨기 때문에(秘密釋), 阿字 스스로 본불생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秘密中秘密釋), 本不生의 理 그 자체가 理와 智를 갖추고 있어 스스로 본불생을 깨우쳐주기 때문에(秘密中秘密釋)라고 설명하면서, 《공양차제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阿字本不生이라고 하는 一大事の 證理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상 간략히 《공양차제법소》의 釋文을 보면서 신라 밀교승 불가사의의 사상을 고찰해 보았으나 불가사의 자신도 최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大悲胎藏生 曼荼羅의 證入을 위한 阿字本不生의 證理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그는 아자본불생의 증리를 위해서는 평등·분서·제장·경각의 뜻을 가진 삼매야에 대한 信解와 三密瑜伽의 실천도를 여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야 비로소 ‘나야말로 一切智智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如實知自心の 경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아자본불생의 證理야말로 여실지자심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곧 불가사의는 《대일경》의 근본 취지가 아자본불생의 증리에 있다고 보고 시종일관 대일경의 모든 교리와 字句를 아자본

此一字爲眞言也(大正藏 39, p. 805上).

42) 問阿誰向本法呼本不生耶 答有三種 一秘密釋二秘密中秘密釋三秘密中秘密釋 一秘密釋者毘盧遮那佛說本不生故 二秘密中秘密釋者阿字自說本不生故 三秘密中秘密釋者本不生自有理智自覺本不生故 供養法一卷從初至末唯有爲一大事(略)此文造人新羅國零妙之寺釋僧不可思議(略)願此文見獨知於本不生理中證(大正藏 39, p. 807下).

불생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가사의의 교학 내지는 思想定立 과정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공양차제법》을 쓰면서 참조하였던 경론들을 살펴보니, 《대일경》을 비롯하여 《華嚴經》《涅槃經》《中論》《大智度論》《十住毘婆娑論》 등의 대승경론과, 《四分律》《十二頭陀經》(大正藏, No. 783) 《雜阿毘曇心論》(大正藏, No. 1552) 등의 律部 경론들이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사의가 태장계밀법뿐만 아니라 소·대승의 경론론 삼장에도 통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겠다. 하기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불가사의니만큼 불가사의에 대해 새삼 무엇을 다시 논하겠는가?

어떻든 불가사의는 태장계밀법의 대가인 선무의 삼장의 付法弟子로서뿐만 아니라 대일경을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인물인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언제 본국 신라에 돌아왔는지, 또 공양차제법은 언제 어디서 집필된 것인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알 길이 없다. 다만 《삼국유사》 제5,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條에 ‘邊山不思議房’과 ‘供養次第秘法’(1권)이라는 문구가 보일 뿐이다.⁴³⁾ 不思議란 이름이나 供養次第秘法이란 經名 등 《공양차제법》을 쓴 不可思議와 너무나 관계 깊은 것이기에 도저히 그냥 스쳐지나 갈 수가 없다. 혹시 불가사의가 귀국하여 이곳에서 密法을 흥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인생 말년에 이곳에 와 최후를 맞이한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不可思議의 後裔들, 곧 불가사의가 속해 있던 總持宗 승려들이 이곳에 모여 도량을 형성하며 밀법흥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더 이상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안타개를 뿐이다.⁴⁴⁾ 현재 《佛書解說大辭典》에는 불가사의의 《공양차제법소》에 대한 주석서로서 《大日經不思議疏記》《大日經不思議疏口訣》《大日經不思議疏三重秘釋傳授口說》 등을 비롯하여 10여 부의 주석서가 收載되어 있다. 이들 주석서 대부분이 鎌倉時代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鎌倉時代에는 《대일경》을 비롯한 불가사의의 《공양차제법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⁴⁵⁾ 밀교연구 특히 대일경 연구에 있어 불가사의가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어야 할 우리 땅에서는 어떤 일인지 주석서는 고사하고 당사자 不可思議에 대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43) (順)濟授沙彌戒法傳敎供養次第法一卷占察善惡業報經二卷(略)(眞表)入邊山不可思議房(略)(眞表)師曰我是金山藪眞表僧 予曾入邊山不思議房於彌勒地藏兩聖前親受戒法眞性(大正藏 49, p. 1008上~中).

44) 진표스님에게 《공양차제비법》(一卷)과 《占察經》(二卷)을 전해 준 진표스님의 師僧, 順濟法師가 어떤 분인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하겠으나, 글 전체의 내용(두 경전이 모두 밀교경전이라는 점, 또 관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에 대한 懺法信仰 등등)을 분석해 볼 때, 순제스님과 진표스님이 純密僧 不可思議와 관계를 가진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45) 《佛書解說大辭典》 권7, pp. 407~408.

2. 慧超의 사상

《往五天竺國傳》(大正藏, No. 2089)이란 불후의 명저를 남겨 그 이름을 세계에 떨친 바 있는 신라의 밀교승 혜초는 이 외에도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鉢大教王經》(大正藏, No. 1177A)(이하 《千鉢經》이라 표기함)이란 밀교경전의 序文을 썼을 뿐만 아니라 금강계밀법을 중국에 전한 金剛智三藏과 중국밀교의 완성자이며 밀교경전 역경가로서 밀교사에 길이 남을 밀교사상가 不空三藏의 제자로서 그 이름을 밀교사에 남기고 있는 밀교승이다. 이하 앞에서 열거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점검 분석하면서 혜초가 어떠한 사상을 가진 밀교승이었던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千鉢經》은 잡부밀교에서 순밀교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밀교경전으로서 兩部大經 중 특히 금강계밀법을 설하는 금강정경의 선구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전이다.⁴⁶⁾ 현재는 경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경의 序文 쪽에 학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곧 大村西崖 씨는 명저 《密教發達志》에서 천발경의 서문을 근거로 지금껏 금강지삼장의 師僧으로 알려진 龍智아사리 대신에 寶覺을 금강지삼장의 師僧으로 올려 놓으면서 용지아사리를 역사 속에 매몰시키려 하고 있으며⁴⁷⁾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인 宋本文三郎 씨 역시 《千鉢經》의 서문을 근거로 <천발경에 대해서>란 논문 속에서 금강지삼장과 불공삼장의 歿年の 불일치를 이유로, 앞에서 거론한 大村씨의 說, 말하자면 ‘보각신설’에 정면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발경》이 금강지삼장의 역출이 아닌 타인의 역출, 그 중에서도 서문의 작자인 신라 밀교승 혜초의 譯出일 가능성이 크다고 논하고 있을 정도이며,⁴⁸⁾ 밀교학자인 神林隆淨 씨는 앞의 두 분의 학설을 절충하여, 서문은 분명히 혜초의 저작이며, 서문에 나오는 寶覺이란 인물은 금강지삼장의 師僧이 아닌 혜초의 本師이며, 이 《천발경》은 혜초가 五天竺을 주유한 후 사자국(스리랑카)을 여행할 때 얻은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이제 나는 세 분의 학설과 금강지와 불공 그리고 이들 두 사람과 뿔레야 뿔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혜초를 염두에 두면서, 《천발경》의 내용을 분석하여 밀교승 혜초가 가진 사상의 一角이나마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혜초의 사상을 논하기 앞서 문제가 되었던 혜초와 《천발경》과의 관계를 年度順으로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다. 혜초가 오천축을 주유한 후 安西에 도착한 것은 727년이었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730년(開元 18)쯤에는 금강계밀법의 대가 금강지삼장과 만나게 되었고, 그후 제자가 되어 밀교수업을 받아왔다. 733년(개원 21) 혜초는 사자국에서

46) 앞의 책, 권7 354항.

47) 《밀교발달지》, 471~472항.

48) 《종교연구》 3권 2호.

49) 《불서해설대사전》 권7 354항.

얻은 바 있던 애장의 《천발경》을 금강지삼장에게 내보이며 指授를 부탁했다. 지수의 허락을 받은 혜초는 금강지삼장으로부터 8년 간 지수를 받게 되었고 드디어 740년(개원 28) 4월 15일에는 開元聖上皇(玄宗)의 역출허가를 얻게 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薦福寺 內道場에서 금강지삼장과 함께 번역을 시작하여 그 해(740) 12월 15일에 번역을 완료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음해인 741년(개원 29) 8월 금강지삼장은 그만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천발경》의 공인역출은 이루어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혼자 남게 된 혜초는 《천발경》역출의 한을 풀기 위하여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금강지삼장의 수제자로서 사형벌인 불공삼장의 제자가 되고 만다. 불공의 제자가 된 혜초는 《천발경》역출의 꿈을 키우며 밀법수업에 정진하였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또 다시 두번째 사승 불공삼장의 죽음(774)을 맛보게 된다. 《천발경》序文 가운데의 몇 개의 과실은⁵⁰⁾ 바로 이러한 혜초와 《천발경》과의 복잡한 사연, 말하자면 금강지와 불공이라는 두 사승을 여의고 그 결과 끝내 역출의 광영을 얻을 수 없게 된 허탈감 내지는 異國僧이라는 푸대접 등이 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의 반영에서 연유된 것일 것이다. 아무튼 본 《천발경》은 잡부밀교에서 순밀교로 발전해 가는 중간에 만들어진 경전으로서 밀교경전 성립사를 아는데 대단히 가치 있는 경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면 이 경에 대해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짐과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이 경을 연구했을 혜초는 이 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서문 속에서의 혜초 자신의 표현과 松本文三朗 씨의 주장처럼 혜초의 역출일 수도 있는 본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발경》에 대한 혜초의 理解 내지는 혜초의 사상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혜초는 서문의 말미에서

法成身이며 本體이신 비로자나청정부처님, 그리고 空의 체득자로서 반야이시며 無邊慈愛하신 報身·化身·應現부처님들께 머리숙여 절합니다. 네 가지 지혜로써 모든 것을 加持하시며 무궁한 지혜로써 일체에 편만하시는, 그러면서 진여이며 공이며 모양 없는 것, 이러한 성품이 법계의 본모습인 것처럼 유정의 본래 모습 또한 이러하다네. 부처님의 지혜 일체존재의 識 속에 내재해 있기에 중생은 금강이라는 본체와 동등한 것이라네. 여래의 진리 문수에 속해 있으니 내밀한 가운데 그 흐름 또한 장애가 없는 것이라네. 어서 모든 것 갖추어 있는 관정수기 받고 일체여래의 수기 얻어내는 삼밀유가 닦아 본원으로 돌아가서 성불하세나. 천 개의 손과 자비연꽃과 지혜금광으로 일체를 부촉받으신 문수보살이여, 다

50) 금강지삼장의 歿年은 741년 8월 15일이 정설이나, 서문에서는 742년 2월 19일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금강지삼장의 師僧은 龍智아사리로 알려져 왔으나 여기서는 寶覺아사리로 되어 있다. 또 불공삼장의 沒年은 774년 6월 15일이 정설이나 '서문'에서는 같은해 10월까지 생존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섯 개의 지혜로써 가피하시어 보리 실각지를 얻게 하시오소서.51)

라 하여, 《천발경》의 중심사상이 千臂千鉢의 만수실리의 不思議力의 체득, 말하자면 법성신 비로자나불의 報化應現身인 문수보살의 반야지의 체득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곧 중생의 본체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성신을 문수보살의 가지력과 중생의 三密加持瑜伽에 의해 속절히 보지케 하려는 것이 본경의 중심사상이라고 혜초는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서문 앞부분의 五頂五智尊·千佛釋迦·秘密菩薩·三摩地教法 등의 언어들만 혜초가 이해한 이 경의 키-워드였던 것이다.52) 곧 혜초는 《천발경》이 五佛五智思想과 응화신인 천불석가와 문수보살의 비밀삼마지법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라 이해했던 것이다. 이제 본경의 경문분석을 통하여 정말로 혜초가 이 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한 것인지 살펴봄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이 경에 얽힌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도록 하여보자. 권제1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은 일체법 중 가장 수승한 법인 五智菩提와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는 다라니를 유출하신다. 대승을 비롯한 모든 일체법을 섭하고 있는 이러한 다라니 비밀법은 일체 부처님의 지혜와 대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크게 분류하면 다섯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언수행자들이 닦고 수행해야 할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닦고 관찰 것 같으면 속절히 이 법을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본래무생임을 관하는 阿字觀으로 중생들은 비로자나여래께서 설하신 이 관을 닦아야 제법이 본래 청정무생(법계체성지)임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본래 공하여 청정함을 관하는 羅字觀으로 중생들은 아축여래께서 설하신 이 관을 닦아야 원성실상의 무동(대원경지)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본래 진실하여 물듦과 집착과 더러움을 본래 떨쳐버렸음을 관하는 跛字觀으로 중생들은 보생여래께서 설하신 이 관을 닦아야 법계진여의 평등문(평등성지)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는 본래 청정하여 묘한 것임을 관하는 左字觀으로 중생들은 관자재여래께서 설하신 이 관을 닦아야 묘법이취의 정토문(묘관찰지)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본래 공하여 無自性임을 관하는 曩字觀으로 중생들은 불공성취여래께서 설하신 이 관을 닦아야 성취보리의 해탈문(성소작지)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53)

51) 稽首如來法性身 毘盧遮那清淨身 報化應現等如空 般若無邊得自在 四智神用密加持 慧海無窮遍一切 法界眞如空無相 本在有情體性裏 聖智力入識種中 金剛速疾同等體 如來法經屬曼殊 秘密流通無障礙 曼荼灌頂授職位 一切如來摩頂記 瑜伽三密志求成 速達本願登佛地 千臂曼殊蓮華會 金剛等持付一切 五智潛通加被心 出到菩提證實際(大正藏 20, p. 725上).

52) 攝大乘瑜伽金剛五頂五智尊 千臂千手千鉢千佛釋迦 曼殊室利菩薩秘密菩薩三摩地教法(大正藏 20, p. 724中).

53) 毘盧遮那如來 流出五智菩提一切法殊勝總持一切三摩地 根本秘密總有五門 攝一切法大乘修多羅 同一切

라 하여, 진언행자가 닦아야 할 修行次第로서 無生·無動·平等·淨土·解脫의 五種 根本秘密門을 소개하고 있다. 곧 경은 문수보살의 五字眞言인 阿(a)·羅(ra)·跋(pa)·左(ca)·囊(na)진언을 각각 毘盧遮那如來·阿閼如來·寶生如來·觀自在如來·不空成就如來 등의 金剛界五佛과 法界體性智·大圓鏡智·平等性智·妙觀察智·成所作智의 五智, 그리고 無生·無動·平等·淨土·解脫의 五秘密門에 대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언행자가 닦고 지송해야 할 秘密修行 次第法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은

경의 근본 취지는 세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일체법을 유출하고 계시는 본성정지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금강삼마지가 그것이며, 둘째는 보신 노사나부처님으로부터 유출하신 보현보살의 행원력이 그것이며, 셋째는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부처로부터 유출하신 문수보살의 반야가 그것이다.⁵⁴⁾

라 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을 法身佛에 그리고 노사나불과 석가불을 각각 報身과 化身에 배분하고, 나아가서 법신 비로자나불은 금강삼마지를, 보신불은 보현보살의 원력행을, 그리고 화신불은 문수보살의 般若母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설하는 등, 법신·보신·화신 삼신들의 관계 내지는 비로자나불과 보현·문수 등의 특징과 그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곧 상기 내용은 본경의 중심사상이 문수보살의 부사의력 천명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강조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물론 문수와 보현이라는 펠레야 펠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때문임도 있겠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본 《천발경》이 문수보살을 중심 존격으로 하는 잡부밀교와 보현보살을 중심 존격으로 하는 순밀교와의 중간적 위치, 다시 말해 잡부밀교에서 순밀교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이라는 점 때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경은 또 권2에서

유정(중생)의 본심은 대원경지 바로 그것이다. 유정의 본성이 진공임을 통달하는 것을 평등성지를 증득했다고 하는 것이며, 진여지에 들어가는 것을 묘관찰지를 증득했다고 하는

佛心三藐三菩提玄通勝義秘密法敎 云何而行次第 依說聖旨趣求修學觀照 得入此法門 一者(略)入阿字觀本寂無生義 是毘盧遮那如來說(略)如來與說此阿字觀 修入根本清淨無生門 二者(略)入囉字觀本空離塵義 是阿閼如來說(略)如來與說此囉字觀 修入圓成實相無動門 三者(略)入跋字觀本眞無染着離垢義 是寶生如來說(略)如來與說此跋字觀 修入法界眞如平等門 四者(略)入左字觀本淨妙行義 是觀自在王如來說(略)如來與說此左字觀 修入妙觀理趣淨土門 五者(略)入囊字觀本空無自性義 是不空成就如來說(略)如來與說此囊字觀 修入成就金剛菩提解脫門(大正藏 20, p. 725下).

54) 經說之根本宗有三 一者毘盧遮那法身本性清淨 出一切法金剛三摩地爲宗 二者盧舍那報身 出聖性普賢願行力爲宗 三者釋迦化現千億釋迦顯現聖慧身 流出曼殊室利身作般若母爲宗(大正藏 20, p. 730上).

것이며, 진여법성 청정지에 들어간 것을 성소작지를 증득했다고 하는 것이다. 곧 보리성을 증득하는 것, 그것을 지혜성취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대원경지·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지 등 네 가지의 지혜보리를 이룸하여 玄通觀智(근본통달지혜)라 하는 것이다.⁵⁵⁾

如何 名大士 十六大菩薩 云云⁵⁶⁾

이라 하여, 大圓鏡智·平等性智·妙觀察智·成所作智 등의 四智와 금강계 37존 만다라의 16대 보살들을 열거하고 있으며,⁵⁷⁾ 뿐만 아니라

우리들 다섯 大仁(다섯 부처님)은 문수보살과 그 願이 같으므로 문수보살, 즉 다섯 분의 대인이 되는 것이다. 첫째대인은 자성청정지를 얻으신 원만의 비로자나이시며, 둘째대인은 대원경지를 얻으신 무동무상의 아축여래이시며, 셋째대인은 평등성지를 얻으신 본적보생여래이시며, 넷째대인은 묘관찰지를 얻으신 금강보리의 관자재여래이시며, 다섯번째 대인은 성소작지를 얻으신 신통자재의 불공성취여래이시다.⁵⁸⁾

라 하여, 문수보살을 5大仁, 곧 비로자나여래·아축여래·보생여래·관자재여래·불공성취여래 등의 금강계 五如來와 동격으로 묘사하여, 문수보살로 하여금 이들 五如來가 가지고 있는 청정성지·대원경지·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지 등의 五智 소유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이 《不空羼索陀羅尼經》이나 《一字頂輪王經》과 같은 계통의 경전, 다시 말해 잡부밀교에서 순밀교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로서, 법계체성지·대원경지·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지 등의 五智와 비로자나·아축불·보생불·아미타불·불공성취불 등의 금강계 五智五佛의 사상을 설하는 금강정경이 바로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정형화된 경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55) 是故有情心是大圓鏡智心處是也(略)證平等性智者 通達達性本性真空(略)名入如如智 則證妙觀察智也得入如如性清淨聖智 獲得金剛成所作智者證菩提性成就智也 是故則名四智菩提玄通觀智(大正藏 20, p. 731上).

56) 大正藏 20, p. 731下.

57) 《천발경》에서 거명하고 있는 16대보살은 다음과 같다. ①金剛手 ②金剛鉤 ③金剛弓 ④金剛喜 ⑤金剛藏王 ⑥金剛光明 ⑦金剛幢 ⑧金剛喜智 ⑨金剛眼 ⑩金剛慧 ⑪金剛場 ⑫金剛聖語 ⑬金剛毘首羯磨 ⑭金剛慈力 ⑮金剛暴怒 ⑯堅跡金剛界.

58) 我等五仁總同曼殊類故 曼殊室利則與五仁者大丈夫 安立名字故(略)云何一者大丈夫名曰毘盧遮那身心清淨性智菩提圓滿是 二者大丈夫名曰阿闍身心無動性亦無相大圓鏡智菩提圓滿是 三者大丈夫名曰寶生身心平等性智菩提一靜一性是 四者大丈夫名曰觀自在王身心清淨妙觀察智智慧通達金剛菩提是 五者大丈夫名曰不空成就身心智量性等虛空形同法界聖性聖慧成所作智自在神通悉地成就一切菩提解脫是(大正藏 20, pp. 746下~747中).

또 경은 권6에서

보현보살은 그 옛날 수행시절 대행원을 발하여 증생삼밀체성에 들어가셨다. 금강삼밀삼십삼매관이라고 하는 것은 삼십관 하나하나의 관마다 증생 본래 법계심성 소유자라고 관하는 것으로 眞如理智와 금강삼매를 증득하는 것을 말한다.⁵⁹⁾

라 하여, 일찍이 보현보살이 닦아 증득한 바 있는 三十純密觀門을 설하고 있으나, 보현보살이 닦았다고 하는 三密三十純密觀門이란 순밀교학에서 진언수행자의 수행덕목으로 삼고 있는 身口意 三密瑜伽 觀行 바로 그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겠다. 또 경은 권7, 권8, 권9에서 보살이 법계에 들어가 수행해야 할 과정으로서 42위를 내세우고 있으며, 또 권10에 이르러서는 六邪外道の 설을 열거한 후 그들의 설을 비난 내지 파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상 간략하나마 《千鉢經》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분부분 설명을 하거나 또는 경이 갖는 성격이나 경의 위치 등을 언급해 왔으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부언한다면 첫째 이 경에는 白傘蓋陀羅尼經 등과 같은 전형적 잠부밀교적 성격에서부터 42위의 보살계위를 설하는 잠밀과 순밀의 중간적 성격, 나아가서는 五智五佛 十六大菩薩 그리고 三密瑜伽行 등을 설하는 순밀교적 성격까지 폭넓게 설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며,⁶⁰⁾ 둘째로 신라 밀교승 혜초는 선무외삼장과 금강지삼장 등에 의해 중국에 전래된 金·胎 兩部 純密敎의 체득을 목표로 입당하여 금강지삼장과 불공삼장의 문하에서 밀법, 특히 금강계밀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새로운 밀법을 배우기 위해 밀교의 본거지인 오천축에까지 건너가 밀교경전 《천발경》을 장래해 오는 등 순밀교에 대한 그의 향학열은 대단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두지만 특히 혜초가 장래해 온 《천발경》은 〈賀玉女潭祈雨表〉와 함께 혜초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밀교경전 성립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혜초에게는 《하옥녀담기우표》라는 또 하나의 유작이 남아 있는데, 이 글은 혜초가 은사인 不空三藏의 명을 받고 玉女潭이란 호수에 나가 祈雨祭를 드리고 난 후 비가 내림을 보고 너무 기뻐 왕에게 그 성운을 감사드리는 글로서 일종의 영험담의 성격을 가진 보고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글은 혜초가 불공삼장의 六哲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혜초의 활약 내지는 그의 법력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값진 遺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¹⁾

59) 往昔普賢發應大行願入於衆生三密體性 證修金剛三密門三十支摩地觀者 於一支觀中入在衆生根本自在法界心性 眞如理智 奮迅速疾加被安住證窟金剛三摩地(大正藏 20, pp. 752下~753上).

60) 주 46) 참조.

3. 惠日의 사상

중국밀교의 大成者인 불공삼장의 제자로서 금·태 양부 밀법을 부촉받은 惠果和尚 밑에서 일본 진언종의 개산조인 弘法大師 空海와 함께 금강계·태장계·소실지법 등의 삼부밀법과 諸尊瑜伽法을 부촉받은 신라 밀교승 혜일의 동태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그의 부가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무첨 역의 《不空羂索陀羅尼經》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이무첨 역 《불공견삭다라니경》(1권)의 최종품인 제16 〈견여래성취품〉의 끝부분에는

新譯不空羂索經呪鈔功能竟이란 부가문⁶²⁾과 아울러 주석번호 ⑬이 붙어 있다. 그래서 주석번호 ⑬의 설명부분을 보니 거기에는

(新譯……心)三十二字=(不空羂索心印品第十七沙門惠日翻續付成十七品)二十一字宋·元心印品第十七沙門惠日翻續付成十七品十七字明.

이라 하여, 부가된 제17 〈불공견삭심인품〉이 신라 밀교승 혜일에 의해 부가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무첨에 의해 번역되었을 때(700년)는 모두 16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후에 혜일이 〈불공견삭심인품〉을 부가시킴으로써 본경이 17품이 되었다는 것을 송본과 원본 그리고 명본 모두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무첨이 역출한 해(700년)보다 80여 년이나 뒤에 활약한 혜일, 그것도 신라 밀교승이었던 그가 왜 〈불공견삭심인품〉을 부가시켰던 것일까?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경의 내용을 조사해 보니 16품으로 구성된 이무첨 역출의 본경에는 모두 27수의 진언다라니만 설해져 있을 뿐 진언을 지송할 때 結手하는 呪印(mudra)은 설명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16품으로 구성된 원래의 경에는 제1품에 1수, 제4품에 9수, 제7품에 2수, 제11품에 1수, 제12품에 4수, 제13품에 7수, 제14품에 1수, 제15품에 1수, 제16품에 1수 등 함께 27수의 다라니와 아울러 진언지송에 대한 공덕과 화상법 그리고 공양차제법과 조상법, 작단법 등이 자세히 설해져 있으나 웬일인지 結印만은 설해져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라 밀교승 혜

61) 금강지삼장의 사후 혜초는 불공삼장 문하에 들어가 六哲(여섯 명의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뽑히는 영광을 얻을 만큼 진언 밀교승으로서의 그의 법력은 대단했었던 것 같다. 《하옥녀담기우표》는 밀교승으로서의 혜초스님의 법력을 알게 해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참고로 상기기록 가운데 중요부분만을 略記해 보면 다음과 같다. 山川靈應不昧禱祈 初建壇場溪聲乍吼 及投舍利雨足如絲(略) 大曆九年(774)二月五日內道場沙門慧超上表 寶應元聖文武皇帝(代宗)答曰 而知澤荐霑 甫及旬晦 師久榮度潔 勤清道場有年可期 願增歡慶也(《不空表制集》 권5, 大正藏 52, p. 855上~中).

62) 大正藏 20, p. 419中.

일이 그것도 80여 년이나 후대 사람인 그가 <불공견삭심인품>을 부가시킨 것은 본경이 가진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시키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해 혜일은 본경이 가진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역의 《大呪藏》 등을 참조해 가면서 천축국의 대덕인 尸利末多와 함께 <불공견삭심인품> 1권을 새로 편입시켜 도합 17품의 새롭고도 완벽한 《불공견삭다라니경》으로 변모시켜 놓았던 것이다.⁶³⁾ 제1장 신라 밀교승의 동태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혜일은 금·태 양부 밀법의 부촉자인 혜과의 제자로서 일본 진언종의 개산조인 홍법대사 공해와 함께 師僧 惠果和尚으로부터 금강계·태장계·소실지법 등의 삼부밀법과 제존유가법을 부촉받은 밀교 고승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론해 왔던 <불공견삭심인품> 부가문은 금강부·태장부·소실지법·삼부밀법은 물론 제존유가법까지 부촉받았다는 《大唐靑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의 기사내용을 사실 증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⁶⁴⁾ 혜통-명효로 이어지는 신라 총지종 승려로서의 그의 면모까지도 알게 해 주는 더할 나위 없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공견삭다라니경》은 혜일이 師僧 惠果로부터 부촉받았다는 제존유가법 중 聖觀音法에 속하는 경전일 뿐만 아니라 신라 총지종의 소의경전으로서 총지종 개산조 혜통의 스승이었던 중국의 智通화상 자신부터 중시해 오던 경전이었으며, 때문에 총지종 개산조인 惠通은 제자 明曉를 시켜 이 경을 신라에 장래케 하였던 것이며, 총지종의 맥을 이어받아 입당한 혜일 또한 이 경이 가지고 있던 결점을 오래 전부터 알고 <불공견삭심인품>을 부가하였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⁶⁵⁾ 사실이야 어떻든 더 이상의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혜일의 활약에 대해 더 이상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지만, 그 당시 당나라에서나 귀국 후 본국 신라에서의 그의 활약은 생각 이상의 상당한 것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그와 사형사제의 관계에 있으면서 惠日과 더불어 師僧 惠果和尚으로부터 三部密法 등의 정통 순수밀교를 부촉받은 일본승 空海가 본국 일본에 건너가 활약한 모습들이 상기되기 때문이다.⁶⁶⁾ 물론 개인의 능력이나 주위환경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진언종 개산조인 공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여 함께 금강계·태장계·소실지법 등의 전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공

63) 但惠日權案西域大呪藏中說(大正藏 20, p. 420下). 其呪印第十七品沙門惠日共天竺國大德尸利末多續翻附之新編入錄(大正藏 20, p. 421下, 주 2). 혜일과 공역했다고 하는 尸利末다가 어떤 자인지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 혜일연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니만큼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4) 주 21) 참조.

65) 졸고,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2)-밀교종파 총지종의 형성과 전개-〉, 《논문집》 49항 참조, 중앙승가대학, 1995.

66) 弘法大師 空海는 본국 일본에 귀국 후 眞言宗을 임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顯密二教論》《卽身成佛義》《聲字實相義》 등의 명저를 남기면서 밀교의 日本化에 전념하였다. 日本 天台宗을 세운 最澄과 더불어 平安佛敎의 주역임과 동시 현대 일본불교의 뿌리로 인정받고 있는 명승이다.

견삭심인품)을 부가할 만큼의 실력과 정치적 수완 또한 갖추고 있던 해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상 <唐朝의 純密盛行과 入唐 新羅 密敎僧들의 思想>이란 제목으로 당나라의 순밀성행에 따른 신라 밀교승들의 동태와 입당유학 후의 그들의 활동상 내지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상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이제 고찰과정에서 얻어진 몇 개의 결과들을 열거하면,

1. 현장삼장의 죽음(644년)을 계기로 중국불교계는 밀교, 그것도 純密敎라는 새로운 바람을 맞게 되었다. 곧 태장계밀법의 대가인 선무외삼장의 長安入京(716년)과 금강계밀법의 대가 금강지삼장의 장안입경(719년)으로 시작된 이 바람은 그후 불공삼장과 혜과화상의 시대에까지 거세게 불어닥쳐 중국불교를 밀교 일색의 불교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것.

2. 이러한 중국불교계의 거센 밀교바람은 정치·문화·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고 있던 신라에까지 불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가장 강한 바람을 맞은 神印·總持의 兩密敎宗派는 서로 경쟁이나 하듯 自宗의 승려들을 純密授業을 위해 입당유학시키게 된다는 것.

3. 중국 및 일본사서에 보이는 不可思議·玄超·義林·明曉·惠日·悟眞(이상 총지종)과 慧超(신인종) 등은 그 모두가 신인·총지의 양 밀교종파에서 입당시킨 신라유학 밀교승이었다는 것.

4. 이들 중 불가사의·현초·의림 등은 입당 후 태장계밀법의 대가인 선무외삼장의 불법제자가 되었으며, 혜초는 금강계밀법의 대가인 금강지삼장과 불공삼장의 불법제자가 되었으며, 해일·오진 등은 금·태 양부 밀법의 대가인 혜과화상의 부촉제자가 되었다는 것.

5. 이들 가운데 특히 의림은 일본 천태종의 개산조인 傳敎大師 最澄의 法祖가 되며, 현초는 일본 진언종의 개산조인 弘法大師 空海の 法祖가 된다는 것.

6. 불가사의는 <대일경공양차제법소>(1권)를 남길 만큼 태장계밀법 그 중에서도 事相法의 大家로서 그의 법력은 대단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사상은 大悲胎藏生曼荼羅의 證入, 다시 말해 阿字本不生의 證理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修行次第의 확립에 있었다는 것, 곧 그는 아자본불생의 증리아말로 대일경의 키워드인 如實知自心이라 확신하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 三昧耶의 信解와 삼밀유가행의 실천도를 부르짖었다는 것.

7. <왕오천축국전>이란 불후의 기행문을 남겨 놓음으로써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된 혜초는 사자국(스리랑카)에서 취득한 범본 <千鉢經>의 역출을 위해 온갖 고난을 겪게 되지만 師僧 금강지삼장과 불공삼장의 돌연한 죽음으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곧 혜초 친필의 <천발경> 序文은 비록 금강지삼장과 불공삼장의 몰년에 연대착오를 하고는 있지만 금강지삼장을 비롯한 밀교대가들의 동태를 비롯한 밀교사 정립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그리고 밀교경전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말하자면 잠부밀교에서 순밀화되어 가는 과정(교리 및 사상)을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

8. 혜초는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法性身の 체득과 그 체득을 위한 수행법으로 삼밀 유가행을 부르짖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일체중생 모두는 本來法身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三密瑜伽行으로 本具의 범성신과合一할 때 중생 모두는 문수보살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혜초는 보았다는 것.

9. 혜과화상 밑에서 일본 진언종 개산조 홍법대사 空海와 함께 금강계·태장계·소실지법 등의 삼부밀법과 제존유가법을 부촉받은 혜일은 이무침이 역출한 《불공견삭다라니경》에 〈불공견삭심인품〉을 부가시켜 본경이 가지고 있던 결점을 보완시켰다는 것, 그리고 이 경은 聖觀音法에 속하는 경전으로 총지종의 소의경전이었으며 혜일은 혜통·명효의 맥을 이어받은 총지종 승려였다는 것.

10. 지금껏 살펴본 신라 밀교승 가운데 혜초와 오진 등은 안타깝게도 당토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신라에 돌아와 밀교홍포에 생을 바쳤으며, 그리고 귀국시에는 금강지삼장과 선무외삼장 그리고 불공삼장 등에 의해 역출된 수많은 밀교경전들을 신라에 장래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